

'보성 녹돈' 하나의 브랜드로

연내 4개 생산 단체 통합 ... 생산·가공·유통·판매 개선

보성군 특산물인 '보성 녹돈(綠豚)'이 올해 안에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된다.

보성군은 4개 생산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지난 13일 브랜드 통합에 관한 협의회를 갖고 통합브랜드 명칭 사용문제, 생산·유통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생산단체는 보성 녹돈을 비롯해 녹차떡인 패지, 보성회천 녹돈, 보성농협 녹돈 등이다.

협의회는 논의 끝에 통합브랜드 명칭을 '보성 녹돈'으로 정하고, 생산에

서부터 가공·유통·판매 등에 관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한 뒤 오는 12월까지 브랜드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군은 2009년 신활력 사업의 하나로 '보성 녹돈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선정하고, 사육기반 개선 등 4개 분야에 7억원(국비 6억원, 군비 1억원)을 투자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어 통합작업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할 경우 종자·사료·판매의 통일, 이른바 3통(統)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신뢰와 함께 농가소득을 높이고 '녹차수도

보성'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관계자는 "특히 사육과정에서 보성산 녹차잎만을 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연간 25만~30만 마리의 녹돈을 출하할 때 375만~450만에 달하는 녹차잎 소비비율과 발생, 위기에 처한 녹차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56 농가가 13만5천 마리의 패지를 사육, 연간 46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보성=선상근기자 sun@



제철 맞은 미나리

17일 영하를 밑도는 늦추위 속에 나주시 노안면의 한 미나리밭에서 주민들이 추위도 잊은채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미나리는 독특한 풍미가 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웰빙열풍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품질 한우 사계 팝니다"

나주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한우만을 전문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한우촌'이 개관식을 갖는다.

나주배 한우촌발전협의회는 오는 20일 영산포동물시장에서 각 기관단체장 및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기로 했다. 이번 문을 열 '한우촌'은 현행 6단계의 유통구조에서 3단계로 줄여 유통마진을 줄

전문 판매점 '한우촌'

나주 영산포에 개관

이는 반면, 한우암소와 한우 거세우만을 취급해 맞춤형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유통마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소비자가 구입한 소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지정 운영하는 등 고객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우촌 매장 개관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함평 나비쌀' 판매량 사전예고제

연간 판매량 만큼 소진 ... 郡 브랜드 차별화

함평군은 16일 "함평 나비쌀"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나비쌀 판매량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비쌀 판매량 사전예고제는 쌀 포장재에 생산년도, 재배면적 및 재배

농가수, 연간 생산량과 판매량 등을 표기하고 연간 판매량이 매진되면 더는 판매하지 않는 제도다. 군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고품질의 안전한 쌀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함평군은 나비쌀의 품종 선택에서부터 재배·검조·보관·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나 낡은 도정시설을 지난해 4월 최신식 현대화 시설로 전면 교체한 '나비라이프센터'를 준공함으로써 품종순도 90% 이상,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 96% 이상의 질 좋은 쌀을 연중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

나주시 '영산강살리기' 가속도

TF팀 가동 ... 뱃길 복원 사업 추진 본격화

영산포구 개발 등 현안사업 국고지원 건의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주시가 100년 미래가 질려 있다는 판단 아래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20여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영산강 뱃길 복원운동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라 '영산강 살리기 프로

젝트'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지난 5일 사업 주체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영산포구 재개발 등 지역현안사업 19건 3천495여원을 영산강 프로젝트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영산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6명의 직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본격

가동하고 있는 등 시의회 및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업계획 등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고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20일에는 환경단체와 뱃길복원추진위원회 등 시민 300명을 초청해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계획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화순 능주고, 지역인재 육성 산실

올 졸업생 192명 전원 4년제 대학 합격 교사·학부모·재단 아낌없는 지원 효과



화순 능주고등학교(교장 신장식)가 지역인재 육성의 산실로 자리 잡고 있다.<사진>

17일 화순교육청과 능주고등학교에 따르면 2009년도 대입결과 서울대 4명, 연세대 11명, 고려대 9명을 비롯해 전남대 55명, 조선대 36명 등 졸업생 192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다.

능주고는 올해 김호연(기계항공공학부), 노지현(자연과학부), 김충순(농생명공학부), 이태근(공학계열) 등 4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 의·한의학대에 7명이 진학하고 교육대학에도 13명이 합격, 질적으로도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능주고는 지난해 학교평가 최우수학교·교육과정 우수학교로 도교육감 표창을 받았는가 하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 특색 살리기' 선도학교로 지정되기도 했다.

능주고가 이처럼 전국 명문고로 떠오른 이유는 지

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공부하는 열정과 교사들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우수성,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또한 화순군청의 맞춤형 재정적인 지원과 학부모들의 신뢰가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이다.

신장식 교장은 "직연·휴대폰·폭력이 없는 것도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교육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해남 쌀 고급화 '이유 있었네'

'쌀 품질관리실' 설치 성분·품위 분석 효과

해남군이 도내에서는 처음 설치한 '쌀 품질관리실'이 해남쌀의 명성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2007년 쌀 품질관리실을 설치, 군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성분 및 품위분석 등을 통해 쌀 품질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품질관리실은 지난해 9월 전남도 최초로 '품질관리실'을 획득,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품질관리실은 성분분석을 통해 벼 품종 혼입률과 단백질·수분 등 쌀 품질을 엄격하게 분석해 통보함으로써 토양에 대한 적절

한 시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남 쌀 브랜드인 '땅끝 햇살'을 비롯해 '달라이스' 등 매년 200여종의 쌀에 대해 DNA 등 성분분석을 통해 성적표를 산출, 쌀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브랜드 쌀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 순도를 분석을 통해 최고급 쌀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6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우수 브랜드 쌀 '한눈에 반한 쌀'의 고품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광양제철 '최고 직원' 뽑는다

사기 진작 위해 '기네스레코드' 운영

광양제철소는 오는 3월부터 부문별 최고 기록 보유자를 선정, 기록하는 '광양제철소 기네스레코드' 제도를 운영한다.

기네스레코드는 최근 글로벌 경쟁위기로 창사 이래 첫 감산체제를 맞아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단체 및 직원을 선발,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6명으로 구성된 '기네스레코드' 운영위원회(위원장 공운찬 행정부소장)는 최근 1차 운영위원회

를 개최하고 '기네스레코드' 제도의 운영방안과 분야별 항목을 선정,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기네스레코드'는 개인·단체 분야로 나뉘 모두 100여개 항목으로 운영된다. 개인별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혁신·학습·취미·건강·휴먼·기타 등 6개 부문에서 '최다 제안건수', '외국어 최고점수', '마라톤 최고 기록', '최다 봉사시간' 등 30개 항목을 개인분야로 선정한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

2010학년도 대수능 재수 정규종합반 모집

수능 최우수 드림팀 강사진 / 셔틀버스 운행 / 저녁 11:20분까지 의무 자율학습(일요일은 격주로 의무 자율학습) / 철저한 성적관리

인문계열 모집반

- 서울대+경향대(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월 수강료: 47만5천원(평일 10교시+토요일5교시 월 26일 수업))

자연계열 모집반

- 이치한대의대(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개강

2월반 2월16일(월)

3월반 3월 3일(화)

★ 명예로운 학생 ★

- 재수생 전제수석 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박 00군 획득
- 광주 입학생 자연계 신동일 군 (연세대 치대합격(20명 모집)/강릉대치대/단국대 치대 합격)

www.kjildeung.com

찾아오시는 길 : 전남여고 후문과 동부경찰서 사이

NAVER | 광주입학생원 | 검색 | ☎ (062)227~2588(대)

= 앞가가는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었다. =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문제풀이반 4주 완성 수시합수 국가+지방직

=속 지방직 채용인원=

- 서울903, 부산288, 대구100, 인천393, 광주119
- 대전105, 울산 88, 경기885, 강원180, 충북162
- 충남198, 전북 208, 전남 308, 경북 214, 경남 818

개강 1월과 15월(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소방직 · 사상최다모집예정 · 단국대:이명호 교수

- 서울 300, 부산 82, 대구 94, 인천 277, 광주 92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3
- 충남 188, 전북 120, 전남 280, 경북 128, 경남 110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점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si.co.kr

★★★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자격증 준비!! ★★★

공인중개사 10월 25일 시험

여성 최고의 유망 전문직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강" 전원 서울에서 출강!

3월 2일 (첫전도 시작반)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합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